

“ 제발,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yeah, *jesus*요? 그건 더
싫어요! ”



수많은 등불이 정다운 것은

저 속 어딘가에 네가 있기 때문이야



임관주 / 배우 김민하

예하나 YE HANA

/ 키요 하나코 (紀代 栳湖)

KIYO HANAKO

30세

157cm / 마름

출신

1986.01.25. 지구24 일본 오사카 출생 (현재 30세)

언어

제 1언어 - 한국어

일본어도 모국어 수준이나, 한국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제 1언어는 한국어로 설정.

영어 또한 영어권 국가에서 업무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사하지만, 일어화자의 억양이 꽤 많이 묻어있다.

입사 시기 / 연차

2011년 9월, 지구24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입사 (25세)

5년차

소속

교정부 - 지구42 담당 7팀

성격

☼ 부끄럼쟁이

관심 받는 것이 익숙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너무 쉽게 부끄러워하며 그 티가 많이 나는 편.

※ 하나의 수줍음/부끄러움 레벨

귀가 빨개진다 ➡ 얼굴 전체가 빨개진다 ➡ 비명 지르듯 (볼륨은 작게) 으아아... 한 번

내뱉고는 굳어버린다 ➡ 그 순간의 기억이 날아감(여기까진 거의 못 해본 경험)

☼ 덜렁이

하나, 장갑 한 짝 흘렸어요.

하나코, 서류 파일철 어디다 놔두고 왔어요?

하나, 하나코. 하나 씨... 정신 챙겨요.

네, 죄송합니다. 넵. 정신. 정신머리. 정신정신. 아무리 제 머리를 통통 두들겨 보아도... 꼭 뭔가 빼놓는 게 생긴다. 휴대폰 오케이, 지갑 오케이, 시공간이동기 오케이, 정신머리...? 오...케이. (여기서 팁.) 하나의 업무 준비 과정을 보게 된다면, 뭐 잊은 거 없는지 물어서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켜주면 좋다. 그래도 시공간이동기만큼은 제 목숨처럼 중히 여긴다.

🌀 생각 폭풍 주의보

아마도 그 덜렁거림의 원인. 항시 머릿속에 판생각이 가득하다. (하나 씨. 엠비티아이, @N@P쵸? 어떻게 알았어요? 이마에 다 써 있어요.) 주로 상상에 상상이 꼬리를 무는 공상. (하나코, 소설 써볼래? 아뇨, 그런 쪽 글재주는 별로라...)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갖는 시간도 많아서, 하나가 갑자기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다면? 스스로와의 깊은 대화 중일 것이다.

🌀 빈말 못하는

하나... 아까 내가 만든 오믈렛 맛 어땠어요?

(말 없이 귀만 붉어짐...)

맛... 없었구나? 분발할게요... (흑흑)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는 귀가... 하나의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해도 쉽게

탄로난다. 그럴 거면, 그냥 빈말이든 거짓말이든 하지 않겠다는 주의다.

기타

☞ 외형

흰 피부, 짙고 검은 눈썹,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주근깨, 살짝 도톰한 입술, 흑단같은 긴 머리칼은 거의 매번 양갈래로 땋는다. 항상 페미닌하게 입고 싶어하며, 원색 계열의 옷을 촌스럽지 않게 잘 매치해 입는 센스가 있다. 더울 땐 린넨, 추울 땐 울과 모직. 신발은 언제나 편한 것만 신는다. 예쁘면 더 좋고. 손과 발(220mm) 크기는 성인 여성 평균에 한참 못미친다. (+ 시공간이동기. 서류가방에 뜨개질로 만들어진 통통하고 빨간 장미꽃 모양 키링이 예쁘게 매달려 있다. 하나의 말로는... 제일 아끼는 물건 중 한 가지로, 할머니가 하나 고등학교 다닐 적에 떠주신 거라 항상 지니는 물건에 꼭 달고 다닌다고.)

★통역기는 깔끔한 볼 피어싱 형태로, 양쪽 귀 모두 낀다. 부위는 아웃컨츠. 빼는 일이 전혀 없다.★

☞ 생애

재일교포(자이니치) 3세. 하지만 너의 뿌리는 한국인이라며 자긍심 잃지 말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라서,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자아가 강하다. 국적도 한국만 있다.

고등학교까지 일본에서 다니다가, 대학은 서울의 Y대 국문과에 입학해 한국-일본 간의 문화사와 문학사, 비교문학을 공부했다. 가족이 있는 일본을 오가느라 휴학도 좀 오래 하고 그랬지만, 결국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직후... 한국에서 제대로 쉬고 놀아 보려 마음 먹은 그 다음 1년 사이에 잡아 채이뚱 LMA에 스카우트 된 것.

-잠깐만, ‘잡아 채이뚱’?

그렇다. 예하나는... 지금의 일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입사 과정에서는 그만큼 갑작스럽고 자신의 경황이랄 게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소매 ‘치기’도 아니고, 소매... ‘넣기’? 명동 거리에서 누가 갑자기 제 손에 이 가방. 아니, 시공간이동기를 쥐여주고 사라졌다니까요? 저는... 제가 순식간에 마약운반책 같은 거라도 되어버리는 줄 알고, 얼른 신고할까 싶어서 뭐가 들었나 가방을 건드렸더니...”

그렇게 됐다.

어떤 처리부 직원의 책임 없는(?) 퇴사를 위한 제물로 예하나가 LMA에 바쳐진 셈.

※ 이후 처리부 업무와 맞지 않다고 느껴... 첫 재계약(딱 5년차가 되는 해의 9월)에서 교정부로 부서 이동 신청하여 승인됨. 교정부 생활은 3개월 남짓인 셈이다.

❀ What's in HANA's bag?

시공간초월통신기 / 일반 휴대폰(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그냥 기능 많은 mp3정도.)과
보조배터리, 줄이어폰 / 지갑(노란색 가죽 반지갑) / 작업일지(혼자 기억할 용도로,
보고서와는 별개의 수첩에 수기작성) / 개인 태블릿 pc와 관련 도구들 / 간단한 필기구 /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무도수) / 파우치 / 포도맛 멘토스 2줄(당 달려...)
- 이렇게 바리바리 보부상이다 보니, 가방에 스트랩을 매달아 메신저백(슬더백)처럼 메고
다닌다.

❀ TMI

누가 머리 땅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잘 못 땅아주더라도 그냥 그 손길 자체를 좋아해서
웃으며 받고 있는 편. (물론 너무 못하면 다 풀고 스스로 다시 땅는다.)

쉽게 얼굴과 귀가 빨개진다. 그래서 어릴 때 별명도 토마토, 사과(링고), 딸기(이치고) 같은
것이였다.

종교는 없지만, 누가 장난스레 ‘하나님’ 이라고 부르기라도 하면, 소스라친다.

부담스럽다나... 그러니 너무 많이 놀리진 말자.

처리부에서 내내 혼자 심적으로 곁돌다가 교정부로 이동한 지 겨우 3개월. 여기서도 곁돌지
않아야 할 텐데... 그 걱정 뿐이다.

+a) 자자잠...시만요... 저, 담배 진짜... 싫어해요. 술도 잘 못 하구. 심한 알레르기는 딱히
없어요!

좋아하는 거 - 예쁘고 귀여운 거 / 책 / 가볍게 손잡고 껴안는 수준의 스킨십 / 수다 떨기

싫어하는 거 - 담배 / 이유 없이 높아지는 언성(무서워요) / 싸우는 거 / 다리 많은
벌레(으악!)

※ 오너 조율 ※

R19 - 선조율 불필요

(통상적 불호가 대부분인 소재의 고수위 RP는 조율 필요/혹은 기피)

G19 - 선조율 필요 (영구상해 기피)

♣ 후관 ♣

↔ 사라 김

사라 선배님. 되게 무뚝뚝하신 것 같았는데, 같이 책 얘기 할 때나 특히 제가 문학책 얘기할 때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제 말이 너무 많아지면... ((죽은 눈))
아유, 제가 말을 좀 줄여야겠죠? 근데 이게 제 맘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중얼중얼)
그래도 가끔 무심히 슥 챙겨 주셔서 감사한!

↔ 여원

한국인의... >>쓰리언<< 학연, 지연, 혈연. 그 중에서도 '학연'.

여원 씨, Y대 졸업하셨다고요? 저돈데! 비록 출신 지구는 다르지만... 지구 13의 Y대학교도 그런가요? 자꾸 묻게 된다. 자연스레 대학생활 추팔도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내적 친밀감이 가득...! 여원 씨, 지구 13의 Y대에서도... 졸업할 때 언더우드 상 앞에서 학사모 던졌나요?

↔ 견향희

그냥 냅다... 조선시대에서 오셨다구요? 대박! 내 눈앞에 중세국어 구사자가 있어! (최 교수님...제가 교수님 이겼어요(?))

그 이후부터 향희 선배님께... 하루에 네 번 훈민정음 읽어달라 하고 여덟 번 용비어천가 읽어달라 하고 여섯 번을 거절 당하는데... (그치만? 결국엔 들어주셨죠?) 처음에 살짝 읽어주시다가,

- 너도 읽을 수 있잖아.

- (하나가 읽는 중...)

- 그래, 여기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중세국어 실제 구사자의 1대1 코칭이라니! (감격) 선배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 아, 제 뜨개/자수 콜렉션 새로 추가했는데 한 번 보실래요?

모든 역사적, 과학적, 개연성의 오류는 멀티버스의 침략...이래요! 🤖